

# 장흥 전통차 '청태전'으로 발효차 시장 선점한다

### 군, 다류 전문가 양성하고 청태전 품질 평가 등 명품화 추진 푸른 이끼 낀 동전 모양 차...농림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

장흥군이 지역 특산 전통 발효차(茶)인 '청태전' 알리기에 나섰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청태전을 시용하는 다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장흥 차의 전통과 역사적 명성을 회복해 최근 소비량이 늘고 있는 발효차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청태전은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 차'로 독특한 이름 만큼이나 그 맛과 향이 뛰어난 장흥의 명물로 꼽힌다. 삼국시대부터 1000여년을 이어 온 전통 발효차로, 찻잎을 찌서 동그랗게 빚은 다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말린 모양이 동전과 같아서 '전차', '돈차'라고도 불렀다. 혹은 절구에 찌어 틀을 찍어내서 '떡차'라고도 했다.

그 유래는 세종실록지리지, 경세유표,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산라사대에 보림사에서 청태전이 처음으로 재배됐다"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태전은 장흥 곳곳의 야생 차밭에서 채취되며 주 생산 지역은 장흥읍(행원리 소나무숲 일대 10ha), 관산읍(천관산 자락 30ha), 유치면(가지산 비자나무숲 일대 40ha), 부산면(관한마을 대나무밭 주변 20ha)이다. 생산용 야생 차밭은 283ha이고, 이중 100ha 정도에서 찻잎을 채취한다.

동매등, 평지등, 인당골, 부두골, 읍아골, 비자나무골, 작은새동, 돈목골 등에 야생 차밭이 분포돼 있다.

4월부터 5월까지 활발하게 찻잎을 채취하며, 채취된 찻잎은 실내에서 하루 동안 말린 뒤 썰낸 다음 절구에 빻는다. 이후 모양을 잡아 1차 건조를 하고, 구멍을 뚫어 묶은 뒤 2차 건조를 해 총 6개월 이상 숙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장흥군 특산 전통 발효차 '청태전'

청태전이 만들어진다.

장흥에는 청태전을 시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다원이 존재한다. 현재 청태전의 시용과 판매를 진행하는 다원은 장흥다원, 다소원, 보림다원, 여암다원, 장흥청다원, 청태전연구소, 천관다원, 평화다

원, 성림다원, 수인산다원, 설송다원 등이 있다.

장흥군은 또 다류 전문가 양성, 청태전 표준 제다 실습, 청태전 품질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태전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4년 세계녹차컨테스트에서 최고금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이태리 투린시에서 전통 종자와 음식을 보존하고자 추진된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서 '돈차'라는 이름으로 등재됐다. 이후 2014년 '슬로푸드 프레시디아(Presidia)'에 선정돼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 대내외로 그 가치를 입증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발효차 시장을 겨냥해 청태전의 진가를 인증해 보겠다"며 "청태전에 보이차와 같은 숙성 발효 기법 등을 도입해 청태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2050년 탄소중립 실천 다짐 농협함평군지부·함평군



농협 함평군지부는 지난 29일 이상의 함평군수와 함평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정간담회를 갖고 '2050 탄소중립' 실천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유통개선과 고품질 사랑기부금 도입 등 농업·농촌 분야의 현안을 논의했으며, 질소비료 적당량 사용과 비 중간 물 떼기, 논 비 대체작물전환 등을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제로'라고도 한다.

김전국 농협 함평군지부 지부장은 "농협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앞으로도 함평정 정화활동과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를 실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은하 기자 hwang@kwangju.co.kr

#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초읽기'

### 심사단 현장평가...이달 중순 발표 지정면 3년간 10억원 국비 지원

나주시는 지역 특산물이자 대표 농업 유산인 나주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정부가 보전·전승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무형의 농업 자산으로 제1호인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을 비롯해 제주 밭담(2호), 구례 산수유 농업(3호), 보성 전통차 농업(11호) 등 모두 15개소가 지정돼 있다. 전남은 이 가운데 5개가 포함됐다.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전승·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주민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3년간 10억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500년 이상 역사성을 갖춘 전통농업유산인 나주 배의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과 협약하고 민관 TF팀 구성, 농가·주민 간담회 개최 등 유산 지정의 당위성과 절차적 체계성 확보에 힘써왔다.

유산 지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현장평가는 금천면 나주배박물관 발표, 3대째 전통농법으로 배 농사를 지어온 금천면 원곡리 이병근 농가 방문·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6일 나주를 찾은 심사위원단은 나주 배 고 유 농법 중 수리 및 저장 체계인 '암거배수'와 '반지하 저장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심사위원단은 초생 재배법, 천연 퇴비법, 발연법 등 나주만의 배 재배 농법 시연 현장도 살폈다.

현장평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 달 중순경 최종 지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강 나주 배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배 농업 전통문화 보존뿐만 아니라 배 주산지 명성 유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 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들이 지난 26일 배 보관법 시연을 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 aT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장성군, 전남 유일 3년 연속 선정

장성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공모에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됐다.

장성군은 이번 공모는 전국적으로 27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전남에서 총 3개소가 공모사업 대상에 포함됐으며, 군은 이 가운데 2개 직거래장터(장성호, 황룡강)가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한 군은 기존 장성호 수변길마켓 지원과 함께, 황룡강에 신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달 중 개장할 계획인 황룡강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플라워 리버(flower river)의 앞 글자를 따 '황룡강 플라워마켓'이라고 이름 지었다.

주말 평균 7000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장성호 수변길에 위치한 수변길마켓 운영도 더욱 활성화한다.

군은 직거래장터 참여 단체에 맞춤 교육과 상담, 홍보 등을 지원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는 판로 개척을, 관광명소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장성의 명품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활기찬 직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8일까지 '강진 GOOD 페스티벌' 개최

강진군이 오는 8일까지 주유 상가와 관광지에서 '강진 GOOD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강진 GOOD 페스티벌은 'Go 강진, On 축제, Off 스트레스 Do 미션투어'의 약자다.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액티비티 미션투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션 투어', '라이브 커머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액티비티 미션투어'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된다. 1일 차는 강진읍 상권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퀴즈, 장보기 미션 등을 팀별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일차는 강진만 생태공원,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힐링 요가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램을 가진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션투어'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에서 50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강진을 방문해 미션 소개와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 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로드 영상 중 우수콘텐츠를 선정해 시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계행사로 진행되는 '강진 라이브커머스'는 네이버 쇼핑LIVE를 통해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강진책방, 동백오일, 한입전병, 쌀귀리, 작두콩

차 등 다양한 강진의 특산물과 청년창업으로 개발된 오토릿의 스무디밀과 귀연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아나운서 출신의 전문 MC와 많은 팬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2021 강진 GOOD 페스티벌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